International Center for Diaspora Missions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DIASPORA 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 이주민을 대변하는 신문
- 이주민선교사, 선교단체, 지역교회를 아우르는 신문
-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 관련 전문 정보와 소식의 플랫폼

제 8 호 | 2022년 2월 1일 | 월간 발행

부모가 이주하면 자녀도 이주한다

어린이 이주의 상황과 원인

18세 미만 청소년 이주 이유와 배경... 가장 보편적인 경우 부모의 이주 때문
최근 이주 아동 정책, '미등록 이주 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개정 방향

"교육은 아동 인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이주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주의 배경은 어려움과 위험에서 비롯되었을지 몰라도, 이주한 환경에서 모든 어린이는 기회와 기대와 희망을 누려야 한다. 이주 아동의 학습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이주하는 아이들

18세 미만 청소년이 이주하는 이유와 배경은 다양하다. 이주하기까지 아이가 겪는 여러 필연적 상황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부모의 이주로 인한 이동이다. 자녀 양육의 권위자 제임스 돕슨(James Dobson)은 어린이에 대해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곧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밀려오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러한 심리 변화는 이주 과정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 어린이의 행동은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전환 경험, 외에도 양육자의 태도 등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격한 환경 변화를 겪는 디아스포라 아동에게는 세심한 양육과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존 파이퍼(John Piper)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모든 민족(panta ta ethne)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 '모든 민족/이방인'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은 제자화의 범위에 영향을 끼친다. 모든 연령대, 모든 인종,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심은, 지상명령을 이행해 나가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린이의 제자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도전을 준다(마 2:11; 눅 2장).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라는 존재를 쉽게 지나쳐왔다. 미국 기독교 잡지 '미니스트리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목회자 대부분이 어린이 양육보다 성인 양육을 우선시한다고 전해졌다. 특히나 이주 아동은 이주민인 동시에 어린이로서 그만큼 소외당하고 간과되어온 존재다. 국내의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및 NGO가 선교지의 아이들을 꾸준히 도와왔지만, 정작 국내의 이주 아동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교육은 아동 인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이주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주 아동의 학습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이주 상황을 긍정적으로 다룰 때는 대부분 기회, 기대, 희망 등의 단어로 표현되지만, 부정적인 상황은 어려움, 위험 등으로 표현된다. 이주의 배경은 어려움과 위험에서 비롯되었을지 몰라도, 이주한 환경에서 모든 어린이는 기회와 기대와 희망을 누려야 한다. 그 근간이 바로 교육이다.

디아스포라 어린이는 건강한 자아발달을 도울 성숙한 어른 신앙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번 호는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 사역현장의 소리를 담았다.

▶12-13페이지에서 계속

[인터뷰] SG 코리아 **유해연 대표**

'교차 문화 배경 청년' 고용·창업 적정교육 제공

2008년 C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세 가정이 있다. 한마음으로 연합사역을 시작한 그들은 기숙학교를 운영하며 15~22세의 가정교회 자녀들에게 치기공·제과제빵·영어·유아교육·컴퓨터·음악을 가르치는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영성 훈련을 하였다. 사역의 기쁨도 잠시, 2012년 그들의 사역처는 공안에 의해 폐쇄되었고 학생들은 흩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사명으로 무장된 선교사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SG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제2의 연합사역을 한국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필자는 가산디지털단지에 새롭게 둥지를 틀고 이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SG코리아를 찾았다. SG코리아의 총괄 디렉터 유혜연 박사가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글 유해연 박사

SG코리아 총괄 디렉터
OCI(One Challenge International) 소속 선교사
목회상담학 박사(로고스 복음신학교)
풍성한삶연구소 대표

Q 'SG코리아'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나요?

'SG'는 'Shine Glory'의 약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선교적 정신이 담겨있는 직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지원 개발원입니다. 국내에 더욱 다양해지는 이주민 상황들에 즈음하여, 이주민과 국내기업 양측에 필요한 고용 창출을 위하여 적정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SG코리아의 강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현 대학교수, IT업체 CEO, KT 파견 강사 등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였으며, 한국어 과정은 교원자격증 교사 2명과 다수의 1:1 대화 연습 봉사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상담과 지도는 석박사 학위자들이 담당하고, 영어는 원어민 교사가 소통과 실전에 방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Q SG코리아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SG코리아가 제공하는 교육의 어떤 점이 유익한가요?

대상자로 '교차 문화 배경 청년'이라는 큰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주민, 중도입국 자녀, 북향민, 난민, 자립 준비 청년, 다문화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유연한 운영으로 일반 청년도 포함합니다. 이들은 SG코리아를 통해 언어를 배우고, 직업 교육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교사/멘토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유익합니다. 기초과정 5개월, 심화과정 5개월 동안 한 학생이 적어도 40~50명의 '어른'을 접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따뜻한 연대를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가며, 세상에 맞서 당당히 설 힘을 기르고, 강한 지원을 경험합니다.

Q 각종 복지 제도와 교육 제도가 촘촘한 한국에서 SG코리아 개발원 같은 역할이 필요한가요?

어느 선진국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층은 존재합니다. 다양한 법적 이유로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자발적인 선택으로 고립되기도 하고, 단순히 정보부족인 상황도 있습니다. 소외계층은 대부분, 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사람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모양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SG코리아는 교재 중심,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생 중심, 필요 중심의 맞춤화 교육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인격적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Q 이주민을 기독인으로 초대하고 통전적 선교를 교육에 담아 제공하는 과정에서 SG코리아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크리스천 전문 교사들을 동원하여 실질적인 직업 및 창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자립 준비 청년이나 재중교포는 실전 영어 교육으로 언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전문 상담사와 코치가 학생 개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와 회복을 유도하며, 특히 교차문화를 직접 경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멘토 및 전문상담사들이 풍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Q SG코리아의 운영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SG코리아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5개월에 50만 원의 학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무상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학비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에, 학생의 상황에 따라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Q 교육 장소를 가산디지털단지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가산디지털 지역은 새롭게 떠오른 IT 중심지로, 교육 이수 후 인턴 또는 취업으로 연계가 용이합니다. 또한 노동인구 70% 이상이 2030 청년들로, SG코리아의 이주민 학생들이 이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육 장소도 이주민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사회의 인구 절감 문제로 인해 이주민 유입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생산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때에, 정부는 효과적인 이주민 정책을 세워 경제 및 산업 영역에 이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혜로운 틀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SG코리아가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고용·창업 적정교육은 실제적인 대안이 되며, 이주민 선교의 또 다른 모델이다.

문창선 편집인
witheeman@gmail.com

GGVS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인성과 세계관을 가르치는 GGVS
Mission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리더들로 양육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Vision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가운데 절대적인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크리스천 학습교육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
모든 일반 학문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ACSI 교육과정을 IT와 미디어의 기능 적용
Application ONLINE 교육 통합 시스템, K-12학년 운영, ACSI 의 회원으로 미국 교육과정 인정, 미국 대학으로의 입학 자격, 실시간 크리스천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 교사 한명 당 10명의 학생을 배정, 현지학습센터(LLCS)운영-음악, 미술, 스포츠, 문화, 예능
GGVS 한국위원회 _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2길 11, 2층
GGVS 한국대표이사 이제순 목사 / GGVS 학교 부설 학습센터장 조경애 교사
http://ggvschool.com/
GGVS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http://school.ggvschool.com/
ACSI Member: https://www.acsi.org/find-a-school
입학 및 편입 안내 010-2074-3906

[특별기고] 이주민 자녀교육과 **선교전략**

자녀교육 문제, 이주민 선교전략의 중요한 테마

글 **박찬식 소장**
국제이주자 선교포럼 상임이사
(사)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소장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한국 내 이주민은 2007년도에 106만 명을 기록한 후 2019년도에는 250만 명 대에 이르렀고 외국인 중 한국인으로 귀화한 자도 약 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역시 크게 늘고 있다. 2035년경에 이르러서는 귀화자 약 40만 명을 포함하여 인구의 10%에 이르는 약 500만 명의 이주민이 이 땅에서 살게 될 전망이다. 심화된 다민족·다문화 사회, 이민사회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개신교회와 이주민 선교 사역자들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타 종교에 비해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해왔다. 구령사업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 임금체불 개선, 법률문제 및 인권 보호, 의료사업 등 이주민의 외로움과 아픔에 함께 하는 귀한 활동을 이어왔다.

선교 방향 전환기

이전에는 우리의 선교 방향이 이주노동자나 이주자 개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가족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삶을 바라봄으로 선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얻고 살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장기체류·가족 단위 유입·국제결혼 등으로 우리 사회에 정주하는 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국내 유입 이주자의 정주화로 이들의 문화와 종교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함께 이웃으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도전을 준다.

세계에는 무수한 민족이 있지만, 가족 문제 그중에서도 자녀교육 문제는 모든 민족의 공통 관심사이다. 자녀교육 문제는 한국교회의 목회와 전도 영역 외에도 이주민 선교전략의 중요한 테마가 된다. 이주민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선교적 접근은 이주자 선교를 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선교 인재양성의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주민 자녀는 2개국 이상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여 장차 심화된 이민사회와 국제화 시대에 유능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우리의 교육 선교활동은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몽골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재한몽골학교, 광주의 새날학교, 포천의 다문화학교 등 전국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기는 하나, 그 수가 소수에 머물러 있고 시설 및 예산 지원이 열악한 학교가 많다. 이외에도 교회와 이주민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글학교를 통해서 이주 아동과의 소통이 이어져 왔으나, 본격적인 이민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주 아동을 위한 교육선교는 더욱 개선하고 개척할 분야가 많다고 본다.

이주민 어린아이들 교육목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는 박찬식 소장

이주 아동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재한몽골학교와 같은 민족별 학교 외에도, 이주자 전체를 위한 전문적인 기독교 국제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 그리고 이주 과학자들이 많은 대전 지역은 이미 그 여건이 형성되어있다.

둘째는, 현재 한국 학생이 중심인 기존의 기독교 미션스쿨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교육커리큘럼을 도입하는 시도이다. 이 전략은 이미 많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크다. 다만 한국 학생과의 조화 및 조정이 과제로 던져진다.

셋째는, 교회 주일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주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연구와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주민 성도를 대등한 성도로 받아들이는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이주 아동을 위한 교육의 총괄적인 연결화 작업이다. 다시 말해, 어린 영아의 탁아사업(0~2세), 유아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전체적인 기독교 교육의 연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히 시급한 과제는 어린 영아의 탁아사업인데, 개신교에서는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다만 안산에서 천주교회 소속의 영아원이 수년간 운영되다가 중단되었다). 유아원 역시 극히 적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낯선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에게는, 그들의 자녀의 애로를 돌보아주는 교육사업이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망이 되는 일이다. 이 사랑을 교회가 복음과 함께 베푼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연재] 프랑스 위그노 선교가 21세기 디아스포라 선교에 주는 교훈 -2-

선교 역사상 가장 규모 큰 디아스포라 선교사, 15만 명의 위그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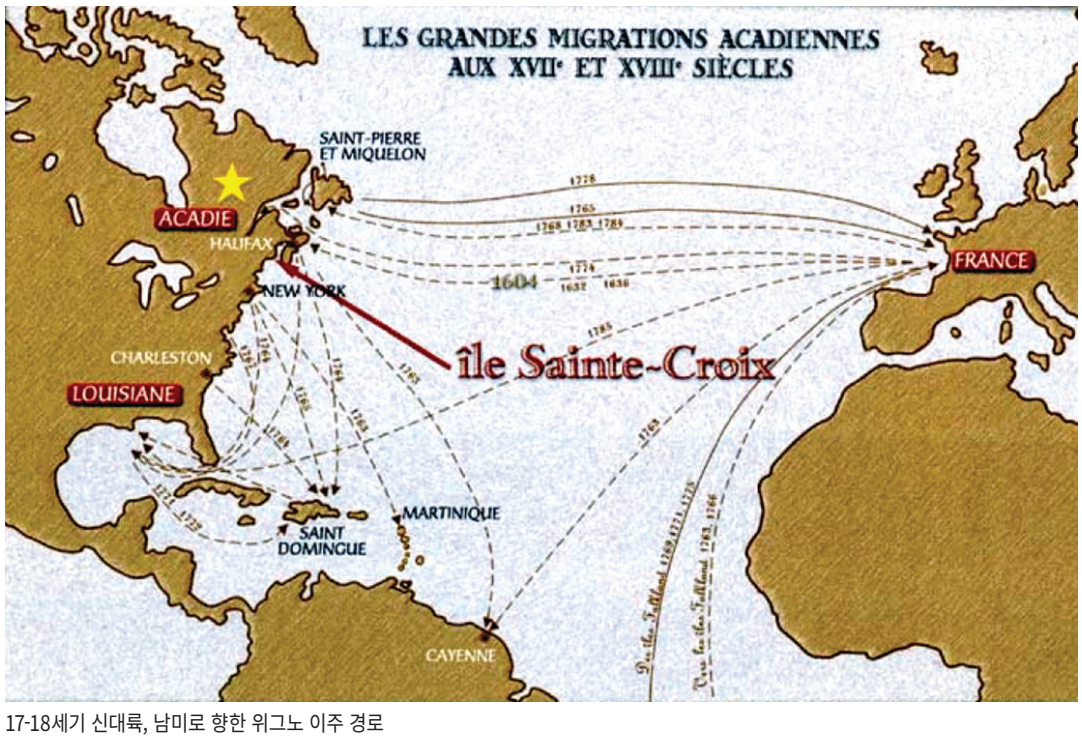
종교개혁 시대에 디아스포라 선교의 문을 열었던 프랑스 위그노의 역사적·종교적 배경과 오늘날 디아스포라 선교에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 채희석 목사

Ph.D, 프랑스 침례교단(FEEBF) 목사,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목회신학교(ATI) 파리분교 교장,
한불상호문화원 원장

▶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극심한 곤경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수많은 위그노는 오직 '신앙을 위해' 망명의 길을 주저함 없이 선택했다. 혹자는 그 수를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심지어 볼테르(Voltaire)는 그 당시 프랑스 개신교 인구였던 팔십만이 대부분 망명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17세기 후반 마지막 15년 동안의 위그노 망명자 수는 약 15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Louis Fraysse, 2016). 당시 프랑스 왕국 인구는 2천 백만 명이었으나 1715년에는 인구가 천 9백만 명으로 급감하였다. 즉 총인구의 약 7~8%가 망명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명이 이루어진 시대를 전후 범위를 더 넓혀서 살펴본다면, 16~17세기 전반에 걸쳐 총인구의 10%가 넘는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위그노가 망명을 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Meinrad Busslinger, 2016).



17-18세기 신대륙, 남미로 향한 위그노 이주 경로

> **위그노를 수용한 나라는 일반적으로 위그노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지대한 연대감을 가지고 대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1684년에서 1689년 사이에 난민 2만 7천 명, 특히 빈민을 위한 구조사업이 실시된 바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망명 온 6만 4천 명의 위그노가 비슷한 혜택을 받았다. 독일의 일부 영주들은 위그노가 지닌 직업 전문성과 그들의 다양한 자질을 유별날 정도로 높이 사기도 했다. 위그노가 지역 개발과 경제발전에 미칠 영향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위그노를 영접하는 베를린 영주

그렇다면 위그노들이 선택한 망명지는 어떤 나라일까? 주로 유럽, 그중에서도 4개 국가에 가장 많이 수용되었다. 이 나라들은 대체로 개신교에 우호적인 곳이었다. 네덜란드 7개 연합주에 5만 명, 독일에 4만 5천 명, 영국에 4만 명, 스위스에 2만 2천 명이 망명하였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보다 먼 곳을 향해 떠났다. 영국령 미대륙·아일랜드·스코틀랜드 등으로 향하였고, 또는 스칸디나비아반도·덴마크·러시아 등으로, 또는 브라질·베네수엘라 등 남미와 카리브 서인도 제도로,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희망봉에 이르기까지 위그노들은 개혁신앙을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졌다(Louis Fraysse, 2016).

위그노를 수용한 나라는 일반적으로 위그노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지대한 연대감을 가지고 대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1684년에서 1689년 사이에 난민 2만 7천 명, 특히 빈민을 위한 구조사업이 실시된 바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망명 온 6만 4천 명의 위그노가 비슷한 혜택을 받았다. 독일의 일부 영주들은 위그노가 지닌 직업 전문성과 그들의 다양한 자질을 유별날 정도로 높이 사기도 했다. 위그노가 지역 개발과 경제발전에 미칠 영향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 예시로, 독일의 브란데부르크(Brandebourg)의 선제후이자 프로이센 공작이기도 했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Frédéric-Guillaume)는 포츠담 칙령(1685)을 통해, 낭트 칙령이 폐지되어 추방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위그노를 환영하였다. 망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10년간 세금 면제, 제조업자에게는 재정 및 물자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1700년도 베를린의 경우는 인구의 1/4이 위그노였다고 전해진다(Louis Fraysse, 2016).

반면 위그노를 마지못해 받아들인 곳도 있었다. 영국의 경우, 프랑스와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관계였기에 위그노들은 자신의 성을 영국식으로 변경하였다. 프랑스 성 Leroy는 영국식 King으로, Lejeune은 Young, Tommeliers는 Cooper, Lenoir는 Black으로 개명하는 식이었다. 많은 위그노가 영국 국교(Anglican)로 개종하면서 영국 문화에 빠른 속도로 동화되었다. 독일이나 스위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을 싫어하는 경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위그노를 부담을 주는 구제민,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목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17세기 말 스위스 로잔(Lausanne)의 경우, 로잔 대학생들은 위그노 목사가 목회 사역지를 독점할 것이라 우려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일부 주(canton)에서는 새로 온 위그노를 독일 영토로 다시 내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칼뱅의 나라이기도 했던 스위스는 다수의 위그노에게 단지 임시 체류 장소이기도 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피플] 김유복 선교사 (대구기쁨의교회) 리포트

단비이야기… 단비 때문에 우린 행복해요

단비의 돌잔치

"지금 남은 과제는 단비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두 사람이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둘은 베트남에서 살 집 지을 돈을 모으기 위해 일한다. 단비를 키우며 그 돈을 모으기가 어려우면 이제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베트남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렝마이는 자기가 키우고 싶어 하지만, 와티는 그러면 베트남으로 돌아갈 시간이 자꾸만 늦어진다는 사실에 조바심을 낸다…"

단비 가정을 돕기 위해 참여한 자원봉사자들

단비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와티와 렝마이 사이에서 태어나 이제 갓 첫돌을 지난 예쁘고 건강한 여자아기이다. 이들은 한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서로 사랑에 빠져 단비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부부가 인터넷 까페에 도움을 청하는 글을 우리 교회 성도가 읽고 나서 교회에 알렸고, 교회는 부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모았다.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건냈고, 물품은 순식간에 모여 와티와 렝마이에게 전달되었다.

단비의 가정을 위해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교인들이 공감해 자원봉사팀을 조직했고, 지금까지 매달 쌀과 기저귀, 육아에 필요한 물품과 생필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함께하니 수고가 줄어들고 즐겁게 섬길 수 있다.

단비의 돌이 가까워질 때쯤, 단비가 열이 많이 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화가 왔다. 코로나와 방광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아내와 함께 아기 엄마와 단비를 태우고 대구의료원으로 가 검진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둘은 입원을 했다. 다행히 코로나나 방광염은 아니었고 돌치레인 것 같다고 해 안심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입원비와 치료비가 꽤 나왔지만 교회에 알렸더니 너도나도 후원해주어 교회에서 전액을 지불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검진이나 돌이 지나면 접종해야 할 백신들이 있다보니 아기 엄마가 출근 했다가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잦아져서 회사에서 퇴사 압력을 받았다. 그녀의 퇴사를 막기 위해 나와 아내가 어린이집으로 가서 단비를 태우고 영천에 있는 보건소로 데리고 가고 있다.

단비가 돌을 맞이 하기 전에, 렝마이가 베트남 쌀국수를 대접하고 싶다고 우리를 초대했다.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단비의 생일이 다음 주인데, 돌잔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와티가 자기 딸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아내의 말에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서 단비의 돌잔치를 진행하게 됐다. 부부의 베트남 친구들과 교인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단비의 돌잔치를 우리 집에서 연다는 말을 듣고 교회 지체들이 너도나도 도움을 주겠다고 난리가 났다. 돌잔치 데코레이션을 맡겠다는 사람, 돌떡을 준비하겠다는 사람, 렝마이가 잔치에 입을 옷을 준비해주겠다는 사람, 사진첩을 제작해주겠다는 사람 등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했다. 와티와 렝마이는 베트남 요리를 만들어 대접했다. 돌잔치 당일 코로나로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함께 식사는 어렵지만 선물이라도 전해주겠다고 많은 이들이 왔다. 선물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고 단비의 돌을 축하해주었다. 한국요리, 베트남 요리가 어우러진 잔치상은 천국의 잔치 같았다. 단비가 받은 선물들을 스타렉스가 가득 찰 정도로 싣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렝마이가 나즈막히 아내에게 말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은 처음이에요 사모님"

단비의 젊은 부모 와티와 렝마이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단비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날이면 예외 없이 우리 손목을 잡아끌어 들이고는 그때부터 요리를 시작한다. 베트남 쌀국수, 분짜, 죽, 생선발효액에 찍어 먹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떡…. 아직도 우리에게 먹이고 싶은 게 많단다. 바쁘기도 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기도 한 나는 이들이 베푸는 친절이 처음에는 조금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 나를 바라보며 나도 참 한심하다는 반성도 했다. 이들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는 선한 일을 한다는 나의 자부심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처음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들의 좋은 이웃과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회사 일을 쉴 수 없을 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과 통역, 우리가 병원에 함께 가야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어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였다. 또 자동차가 없어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운전사가 되어 주는 일, 부부관계가 어려울 때는 가만히 들어주고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아주는 일, 행정적인 일 등을 도와주는 일들이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단비와 이 젊은 부부를 데리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지금 남은 과제는 단비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두 사람이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둘은 베트남에서 살 집 지을 돈을 모으기 위해 일한다. 단비를 키우며 그 돈을 모으기가 어려우면 이제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베트남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렝마이는 자기가 키우고 싶어 하지만, 와티는 그러면 베트남으로 돌아갈 시간이 자꾸만 늦어진다는 사실에 조바심을 낸다. 비록 불법체류자 신세이지만, 한국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니 묵인하는 셈인데 필요한 비자를 내주면 좋겠다.

사람을 돕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단비의 가정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보다 기쁘고 보람찬 일은 없을 것이다. (아이와 부모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였다)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내 삶을 바꾼 모멘텀의 순간과 잊지 못할 두 사람

글 **이창배 목사**
본지 편집국장
아이앤유크저널 발행인
기하성 유럽순회선교사

필자는 1999년 1월 13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콘티넨탈신대원(CTS)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한국은 IMF 사태로 국가와 기업과 교회 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 때에 해외 유학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 잘 몰랐다. 너무 믿음이 출중해서였던지, 당시 아내와 어린 두 딸을 이끌고 유럽으로 나왔으니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유럽에 도착하고 겨우 수업을 들을 무렵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유학비 입금이 점점 지체되기 시작했다. 매일 출근하듯 은행을 들러 송금이 왔나 확인하였지만, 나중에는 아예 1원 한 푼도 받지를 못했다. 그렇다고 돈 부탁할 곳도 없었다. 급기야 돈이 다 떨어지고 생활비가 급해진 바람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좋은 카메라 세트를 헐값에 처분하였지만 한 달을 버틸까 말까 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로 막막했다. 머나먼 벨기에 땅에서 어디 손 벌릴 곳도, 아는 사람도 없어 큰일이 났다 싶었다. 그러니 매달릴 방법이라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아버지를 찾는 일이 전부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전무후무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출석하는 한인교회에서 한 성도분을 알게 되었는데, 한참 나이가 많으시고 국제결혼을 하신 분이었다. 그분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을 유심히 살펴봐 주셨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한 시간은 족히 떨어진 도시 안트베르펜(앤트워프)에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주일 예배가 마치면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을 들르시고는 집세를 내주고, 쌀과 반찬을 챙겨주셨다. 본인도 그다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음에도, 벨기에 남편의 눈치를 피해 어려운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천사와 같으신 분이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이다. 이 경험이 우리 가족이 디아스포라로 겪게 된 첫 에피소드일 것이다.

모든 게 궁했던 유학시절

이렇게 궁핍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모든 게 궁했다. 먹는 것 하나를 사도 가격표를 살펴서 가장 저렴한 것을 골라야 했다. 할 수 있는 한 절약해야 했던 시절이니,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타야 하는 등굣길도 걸어가야만 했다. 날씨가 좋은 날은 기분 좋게 걸을 수 있지만, 겨울철이나 이른 봄철같이 추운 시기에는 왜 그리 비가 오는 날이 많던지 벨기에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유독 비가 많이 왔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아내는 꼭 버스를 타고 가라며 차비를 손에 쥐여주었다. 하지만 아까운 돈을 쓰기 미안한 마음에, 끝내 비를 맞으며 학교까지 걸어갔다. 우산조차 없이 코트 깃을 세우고 묵묵히 걷다 보니 비 맞은 생쥐 꼴로 학교에 도착했다.

벨기에 사람들은 남에게 과도한 관심을 내보이지 않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당신의 일이니 내가 돌아볼 일은 아니라는 식의 시민의식은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하기에 편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내 속이 편치 못했다. 수업 전이라 교수들이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불쑥 동양에서 온 유학생이 비에 쫄딱 젖은 채 등장하였으니 일순 놀란 눈을 하고는 정적에 휩싸였다. 어디론가 숨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

차라리 하루 집에서 쉴 걸 내가 왜 왔나 싶었다. 낭패감이 밀려오던 순간,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내 손에 따뜻한 머그잔을 쥐여주었다. 고개를 돌려 눈이 마주치자, 한 노교수가 말없이 미소를 띤 채 커피를 건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상하고 인자해 절로 고개를 숙였다. 태어나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또 있을까? 저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는 것 같던 서글픈 심정이 말끔히 가셨다. 그리고는 내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졌다.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얻은 위대한 순간이었다. 필자의 삶에서 인생역전의 모멘텀이 만들어진,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나라에 와서 쓰디쓴 인생을 맛보는 상처투성이의 디아스포라를 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누군가는 필자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가 있겠고, 그보다 더한 모멸감과 아픔을 끌어안은 이도 있겠고, 다행히 행복한 처지에 놓인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일생에서 가장 값진 모멘텀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주민 사역자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한 영혼이 환희와 절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자의식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 실적과 업적과 실력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마음을 본받는 자(빌 2:5)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극히 낮선 자, 가난에 처한 자를 돌아봐 준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있었기에, 벨기에를 거쳐 독일까지 유럽에서 23년을 디아스포라 사역자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필자는 고백한다. 나 역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고 날마다 기도한다.

글 **유윤종 교수**
평택대학교 구약학 교수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장
구약신약 교수

주여, 나그네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여, 나그네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바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듯
구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듯
현재 머무는 곳이 내일 머물 곳이 아니듯
오늘 우리의 여기도 바람이고 구름인 것을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믿음의 길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고독한 나그네
가나안이라는 본향 찾아 떠난 삶
애굽의 억류도 미갈과의 아픔도 막벨라의 슬픔도
봄의 소망에 겨울을 견디어 낸 한 포기의 꽃처럼
주신 약속과 믿음을 소망의 배에 싣고
인생의 바다를 노 저어가는 나그네

얼마를 더 가야 물이 나올지
얼마를 더 가야 먹을 것이 나올지

끝없는 광야 길을 헤매던 무리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건만
애굽의 배부름에 마음 뺏겨 불평불만과 친구가 되고
젖과 꿀을 품었던 나그네의 소망은 불꽃 떨며 사라지는
한 그루의 떨기나무가 되고 만다

본향인 하늘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심어놓고
절망의 물고기를 낚아채던 그는
없는 것이 너무 많은 나그네에게 가슴 가득 찬 소망을 심어주고
어둠의 강둑에 심긴 욕심을 불사른 채
홀연히 구름 타고 올라가
본향으로 향하는 나그네 길의 이정표가 되었다

바람만 봐도 알 수 있듯
구름만 봐도 알 수 있듯

주여, 나는 나그네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통계자료] 이주민 **다이제스트**

결혼이민자 통계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공표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 등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낮아졌고, 이후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2.7%이다.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및 필리핀 국적 결혼이민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베트남·캄보디아·몽골·태국 등 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국적별 결혼이민자를 보면 중국이 3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26.1%, 일본 8.7%, 필리핀 7.1% 순으로 많다. 성별은 여성이 137,878명으로 전체의 81.8%이며 다수를 차지한다. 남성은 30,716명으로 18.2%이다. 결혼이민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30.1%, 서울 16.7%, 인천 6.8% 등 수도권 거주자가 53.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의사소통이다. 언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들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의사소통마저 쉽지 않다. 이는 곧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난관으로 이어진다. 또한 가정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경우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데, 돈을 벌고 싶어도 언어의 문제로 취업이 힘들고 낮은 급여의 일로 내몰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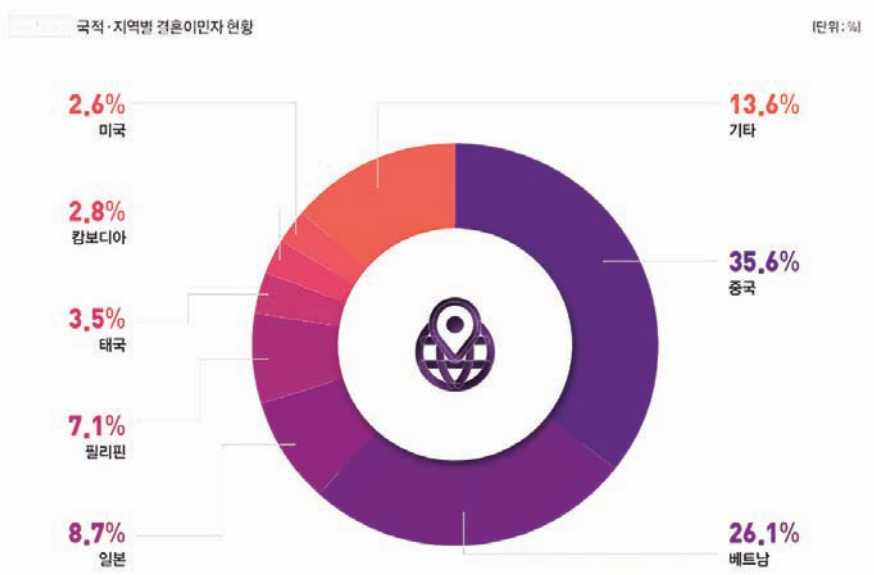
결혼이민자의 문제는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 부모가 언어에 서투르다면 아이들의 언어발달도 늦어질 수 있다.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더디면 친구를 사귀거나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다문화 학생은 일반적으로 취학률은 낮고 학업 중단율은 높으며,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점점 잃어버린다. 특히 중도입국한 학생 중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기는커녕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학령인구는 연평균 18만 명 이상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1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 선교단체와 교회는 결혼이민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환대하며 복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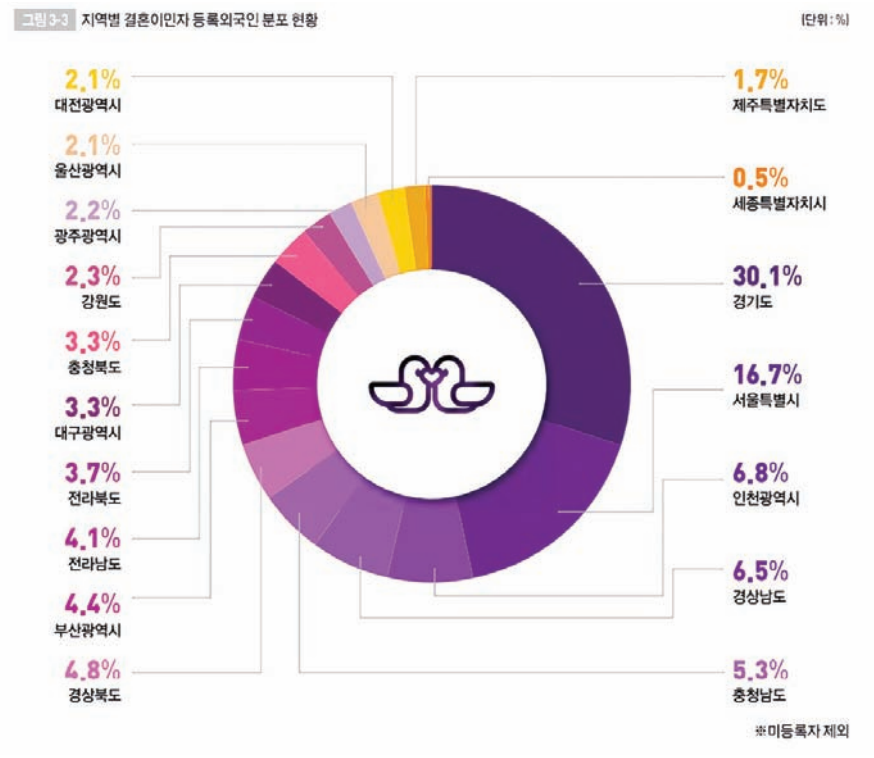
표 3-1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현 황	152,374	155,457	159,206	166,025	168,594
(전년대비)	(100.5%)	(102.0%)	(102.4%)	(104.3%)	(101.5%)

[표]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표]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표] 지역별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분포 현황

김혁준 기자
loke0114@gmail.com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10.7418.0191
http://feedthechildren.or.kr

[전문인칼럼] 목회 단상 **짧은 설교**

스킨십, 부드러운 사랑으로 디아스포라를 끌어안기

글 윤민영 목사

순복음천향교회 담임목사, 위디국제선교회 이사장, 前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前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우리 주변에 디아스포라들을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스킨십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갈급한 디아스포라를 품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손녀 아이가 두 돌이 막 지났는데 말도 제법 잘하고 야무진 모습이 보인다. 바르게 성장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대가 생긴다. 손녀가 너무 예뻐서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고개를 돌리고 힘을 다하여 나에게서 벗어난다. 그리고 바빠서 불편해하는 엄마에게 달라붙어 엄마를 귀찮게 한다. 왜 그렇게 엄마에게 붙어서 엄마를 귀찮게 할까? 이 할아버지는 왜 불편해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젖을 뗐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지도 않을 텐데, 엄마가 안 보이면 못 견뎌 한다. 엄마가 안 보이면 힘들어하는 현상을 오래전에는 원초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리 할로우(Harry Frederick Harlow)는 원숭이 실험을 하던 중 알게 되었다. 그는 어미와 격리된 아기 원숭이가 바닥을 덮은 천 수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고 의문이 들어 실험을 하게 된다. 그는 아기 원숭이와 어미를 격리한 후, 가슴에 우유병을 단 철사 어미 인형과 젖은 없지만 부드럽고 푹신한 헝겊으로 만든 어미 인형을 같은 공간에 놓아두었다. 할로우는 아기 원숭이가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젖병이 있는 철사 인형에 붙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아기 원숭이는 헝겊 어미 인형에게 애착을 갖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배가 고플 때만 우유를 먹으러 이따금 철사 인형을 찾아갔다. 무서운 상황을 연출할 때도 원숭이는 헝겊 어미 인형에게 달라붙어 안정을 찾았다. 아기 원숭이는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철사 인형을 어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헝겊 인형을 어미로 여겼다. 원숭이는 부드러운 엄마의 품이 우유보다 더 필요했던 것이다. 실험을 통하여 친밀감, 안정감, 사랑의 감정이 배고픔의 해결보다 우선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요즘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기성세대가 성장할 때와 비교해서 풍족한 누림이 있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가끔 학교에서 옥수수빵을 나누어 주었다. 지금은 그다지 맛있을 것 같지 않은 빵이지만, 그때는 환상적으로 맛있는 빵이었다. 혼자 먹기가 미안해서 손으로 조금씩 아껴 뜯어 먹고, 1/3 정도 남겨서 엄마에게 드린 적이 있었다. 엄마는 "너 나 먹어!"라고 말씀하셨지만 흐뭇해하신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렇게 자란 것에 비하면, 요즘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풍족한 생활과는 달리,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이나 행복지수가 예전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킨십인 것 같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필자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늘 엄마와 아빠의 부드러운 손길이 함께하였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아빠의 스킨십을 그리워하는 디아스포라들이 적지 않다. 하나님께는 가장 탁월한 아버지 사랑이 가득하시다. 우리 주변에 디아스포라들을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스킨십을 회복하는 것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갈급한 디아스포라를 품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글 이제순 목사

샬롬교회 담임목사
(사)사랑의나눔 공동대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며, 그 복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 곧 성령의 약속임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대부분 성공, 승진, 건강, 가족, 합격, 직업 등과 관련하거나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표현의 일반적인 이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이겠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마 5:45)"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물질에만 해당될까요? 물론 물질은 하나님의 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물질 그 자체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의 완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외적인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2장 3절의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며, 그 복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 곧 성령의 약속임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으로 심판과 저주에 놓여있기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우리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이주하며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직면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보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간구하십시오. 마음을 열어 주님을 구할 때, 풍성히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그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더 넓고, 충만하고, 실제적인 복을 소망하고 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이주민 모두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사역에피소드

사람을 보내 주시는 하나님

글 문창선 편집인

주님의 표적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예배당 건물에 들어선 순간 내 마음에 흥분이 일었다. 두 팔을 벌리면 안을 수 있을 것 같이 안양이 내 시야에 가득 들어왔기 때문이다. 설립일로 소망했던 7월 21일까지 약 2주를 남긴 시점에서야, 마침내 예배 처소를 구한 것이다. 건물주와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일어서는데 전화가 울렸다. 강원도에서 커다란 소포가 왔다는 연락이었다. 1993년 겨울 수련회 때 외국인 성도들과 함께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대천덕 신부님이 강대상 위의 십자가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순간에 그 십자가를 보내주신 것이었다. 예배당을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과, 그곳에 세워질 십자가를 내 손으로 받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삶 가운데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진리!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분이 행하시는 일은 한 치 오차가 없으시다. 주님은 우리의 행보를 지켜보신다.

전부터 개척을 한 신학교 동기가 많아 시간 나는 대로 들러 망치질부터 안 해본 게 없었다. 이것을 기억하셨는지 주님은 돕는 손길을 예비해주셨다. 50평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했는데, 주님께서 준비해주신 일꾼들과 함께 3일 만에 성전 기본 틀이 세워졌다. 개척을 경험한 모든 목회자가 공감할 것 같다. 내 아버지의 집을 세워갈 때의 설렘과 기대감이란!

하나님은 큰딸을 데려가신 후 셋째를 위로의 선물로 주셨다. 배가 불러오는 사모와 예배당을 지어 나가며 여호와의 새 힘을 매 순간 넘치도록 받았다. 사역을 하며 힘들지 않은 날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질 때 주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을 생각하면 시든 풀잎에 내려지는 단비처럼 금세 생기를 회복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시 52:9)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시 138:2)

맥스웰과 캔

'맥스웰과 캔'은 언뜻 커피 브랜드 같지만 실은 가나에서 온 두 형제의 이름이다. 그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며 나를 도왔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하는 이 종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하나같이 주의 몸된 성전 건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었다.

어느 해 추석 명절, 곳곳이 범람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하필 그때 우리는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생각해 보라. 곳곳에 물이 넘쳐 있는데 어떻게 야외 예배를 드리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무모한 행동이라기보단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였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우리가 서 있던 곳 근처에 있는 양어장이 폭우로 인해 터지면서 팔뚝만 한 잉어들이 우리를 덮쳤다. 아프리카 형제들은 즉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고, 양어장 주인은 어쩔 수 없었던지 마음껏 잡아가라며 도리어 우리를 응원했다. 급박했던 상황이 어느새 재밌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교회로 돌아와 아프리카 형제들과 함께 고기를 가지고 매운탕을 끓였다. 청년들이 매운탕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먹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늘 놀라운 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중국선교의 시작

언젠가부터 한 사람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중국 학교에서 교사로 있다가 돈을 벌러 한국에 온 조선족 근로자였다.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그의 신앙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는 아예 교회에서 사찰 노릇을 하며 교회의 궂은일도 도맡아 하였다. 시간을 내어 한족을 전도하고 나서서 중국 모임을 이루어 갔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하여 중국에 돌아가 한족을 위한 중국 선교 사역을 하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는 공언한 대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중국 선교의 구체적인 계획과 선교사역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 급히 병원으로 향하였는데, 뇌에서 종양을 발견하고 말았다. 의사는 그가 수술을 해야 하지만 완치되리란 장담은 할 수 없다는 소견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다며, 중국에 돌아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중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본인의 생각이 워낙 확고하였고,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 나는 그를 중국 심양으로 보내었다.

그는 심양에서 아픈 몸으로 전도와 선교를 행하며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말이 점점 어눌해지는 것을 느낄 즈음에, 심양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가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국내의 바쁜 사역으로 인해 가지 못하였다. 결국 중국에서 비보가 전해졌다. 그가 사역을 하던 중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장모는 내게 전화하여 그가 중환자실에서 연거푸 내 이름을 부르며 "오기로 했는데…"라고 되뇌었다고 했다. 나는 급히 수속을 밟고 중국에 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가 곧 세상을 떠났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아,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알의 밀알 故 김인철 집사님을 통하여 십 년 후 중국 광저우에 중국지부를 허락하셨다. 그것도 제3국 출신 시므온 전도사를 통하여 말이다. 집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천국에서 웃으며 뵐 날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The Diaspora”는 오늘날 유대인의 분산을 의미하는 말

본지는 매월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된 교회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포함되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찾을 수 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없었다면, 교회의 탄생과 확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초창기의 기독교 개종자들과 선교사들은 모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켰는지를 드러낸다.

스티븐 장(PhD 애버딘 대학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은 신약성경에서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준비되었고 선교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본 장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신약성경의 디아스포라 환경에 대하여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범위를 살피면서 그리스-로마의 문화 충돌과 이로 인해 생겨난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로마의 지배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둘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맡은 역할을 살펴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설명한다.

셋째로, 디아스포라 환경에서 일어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기독교의 정체성과 핵심 신앙으로 형성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1세기에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로마제국과 그 너머로 흩어져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미 1세기에 “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 나간 것이다. 비슷한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가는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행 2:5)라고 설명한다. 그는 대략 15개 장소들을 열거한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지정학으로 매우 중요한 제국의 중심지, 로마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누가는 이 글에서 특히 로마인 독자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섬과 사막을 대표하는 마지막 두 지역, 크레타와 아라비아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재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신약성경의 시대에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활동 범위가 광범위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확증하듯, 유대, 그리스, 로마라는 세 문명의 충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스인들은 식민지들을 세우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광범위하게 전파하였는데, 이는 여러 면에서 로마시대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본본기가 되었다. 그래서 신약성경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언어는 그리스어이다. 실상 1세기의 예루살렘 자체가 철저히 헬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간의 차이를 과장해서는 안 되지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와 같은 디아스포라 중심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보다 그리스 문화에 더욱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제안은 합리적이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다. 로마인들은 디아스포라의 지형을 변화시켰다. 아우구스투스Augustus가 이룩한 팍스 로마나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지만, 디아스포라 이동과 기독교 선교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로마의 통제 하에 향상된 인프라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이동을 수월하게 했기 때문이다. 고국의 만성적인 인구과잉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식민지”들에 흩어져 살기를 선택했다. 이전의 유대인 및 헬라인 디아스포라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했다. 로마 행정부는 자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제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넓은 범위, 문명들의 충돌, 그리고 1세기 로마 제국의 통치는 성경의 세계를 기독교 교회의 수립과 확장을 위해 준비했다. 기독교 운동에 대한 이러한 발전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신약성경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는 신약성경의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께서도 애굽에서 가족과 함께 디아스포라를 경험하셨다(마 2:13-15).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초기의 교회확장에 기초가 되었다. 이름 없는 이들과 잘 알려진 이들 모두가 신약성경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들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시한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야기에는 이름 없는 디아스포라들로 가득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도행전 2장의 “하늘 아래 모든 국가에서”온 신원불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에 또 기독교 선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환경으로 돌아간 그들은 사도행전의 첫 선교사들이다. 누가가 언급하는 “로마에서 온 방문객들”(행 2:10)은 복음이 어떻게 처음 로마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유일한 그럴듯한 설명이다. 만일 그렇다면, 서양 기독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중심의 기원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아닌,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다. 사도행전에서 나라의 회복(1:6)은 디아스포라의 증인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다(1:8).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박해가 시작되고, 이 때 이름 없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8:1,4)라고 나온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사도행전 2-4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이들이나 혹은 박해 중에 디아스포라 상황에 처하게 된 본토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빌립은 이 때 흩어진 자들 중 하나이다(8:4). 이 흩어짐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도행전 11:19을 보면,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의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11:20). 이 무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선교의 매우 중요한 도약을 가능케 했다. 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라는 거대한 분열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이는 디아스포라 유대교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다. 신약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데 있어 무수한 무명의 디아스포라들은 복음을 위해 모이고 흩어지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사도행전을 통해 잘 알려진 디아스포라 인물들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서 이러한 무명의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의 특징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사도 바울이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서술은 바울과 바울의 디아스포라 동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바울의 디아스포라로서의 배경은 흥미로우면서도 다소 이례적이다. 로마의 시민이자 바리새인이었던(행 16:22; 빌 3:5) 그의 유창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행 21:37; 22:2). 바울의 가족은 다소라는 헬라도시로 이주하여 그곳의 시민이 되었지만(행 21:39), 선조들의 이주가 강제적이었지 자발적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가 이중국적자이며 수준 높은 다문화교육(다소의 그리스교육과 예루살렘의 히브리 율법교육)을 받았음을 고려했을 때, 바울과 그의 가족이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사례였을 것이다. 선교를 위해 “이방인에게”(행 9:15; 13:46; 18:6; 갈 2:8-9) 파송되는 사도로서의 그의 적합성은 놀라울 정도다. 이 적합성은 분명 그가 디아스포라로서 교육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바울만 유일하게 이례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행 4:36)이자 토지소유자로서, 다른 디아스포라 성공의 예였을 것이다. 바울이 “바나바도”(갈 2:11) 이방인들로부터 멀어져 외식한 잘못을 범했는가 하며 놀랐던 것으로 보아, 바나바의 타문화에 대한 동화 수준은 꽤나 높았을 것이다.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둔 루스더라의 매우 동화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를 만나게 되었을 당시에 무할례 상태였을 정도로 충분히 동화되었다(행 16:1-3). 아굴라는 갈라티아 북쪽의 해안 지대에 위치한 본도에서 왔으나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클라우디우스Claudius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아굴라는 고린도로 향해야 했다(행 18:2). 그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롬 16:3), 고린도(행 18장), 그리고 에베소(고전 16:19; 딤후 4:19)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이끌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행 18:24)로 기록된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황덕영 목사

발행 고문
국제디아스포라선교센터(ICDM)
설립이사장, 새중앙교회 담임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13-16)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인구조사 대상에서 여자와 아이를 계수하지 않을 만큼 여성들이나 아이들의 신분에 대한 인식은 지금의 상황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마태복음 15장에서 21절에 나타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을 보면 당시 여자와 아이들을 향한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민 어린이들의 숫자가 25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주 아동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주민선교에 관련해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주 아동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정이 다문화 가정인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에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상황을 보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어른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자녀들을 만져주심이었습니다(13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16절).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 아이들이 평생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국내에 이주민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비자발적 중도 입국자녀들도 있고, 무국적자녀들도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환영하셨고, 안으시고, 안수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더욱 이주민 자녀들을 맞이하고 사랑하며 축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길강묵 소장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행정학 박사, 주몽골영사
이흐자삭국제대 명예법학박사

대학의 위기

연초가 되면 대학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위원회이다. 유학생 인증대, 비자제한대학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달 어김없이 첫 번째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이고, 등록금 인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해외 젊은이들이 꿈의 나라, 한국에 갈 수 있는 통로로서 한국유학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진다.

결과는 어떠한가. 대학들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인 '불법체류비율'을 낮추기 위해 ' 이전에 발생한 이탈 유학생의 수'를 상쇄할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모셔 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대학들은 우수한 인재의 선별 유치하기보다는 외국인 유치에 급급하게 된다.

일본에서 공부한 유학생의 일본 국내 취업률은 39%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2019년 기준) 일본 진출의 꿈을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일본유학을 선택하는 이유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입학 후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한다. 우리나라는 유학생 취업통계조차가 없다.(산출하지 않는다.) 이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반증한다. 사실상 한국은 유학생 유치 시장에서부터 잠재적 우수 인재들을 빼앗기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 평가항목에 취업률을 반영할 필요성도 있지만, 한편 우리의 대학도 국제화와 이주의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유학생 유치와 함께 이들의 진로에 대해 스승으로서 더 큰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일각에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과연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경쟁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지, 유학생의 진로분야와 우리 젊은이들의 선호업종이 경합되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국내 유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지도 의문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존립의 연장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인구절벽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인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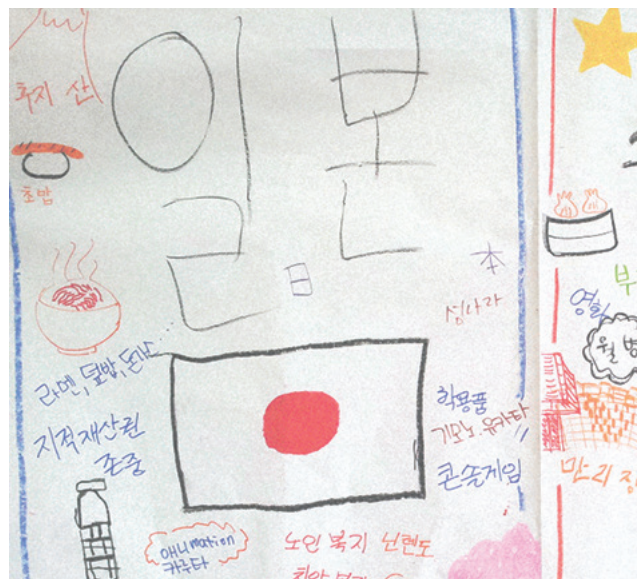
[기획특집] 이주민 정책과 **사역전략**

정부정책은 다양한 선교

우리나라 정부정책 변화, 첫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변화 뚜렷 … 둘째 난민우호정책

글 **안현숙 박사**
늘푸른 교회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사) 한울가족상담연구소

학습캠프


학습캠프

다문화 가정 교회사역 모습

다문화 가정 교회사역 모습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금세기 중반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경제신문은 세계 각국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구는 곧 그 나라의 생산성과 직결되며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첫째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변화가 나타난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난민정책이다. 최근 정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지원을 위해 개정된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시행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을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게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학업 교육의 기회, 초기 생활정착 자금,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난민 우호정책을 폈다.

세 번째로, 미등록 이주 아동과 가족에 대한 처우이다. 또한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는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으면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후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또한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친부 또는 친모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재외동포(F-4)의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스타트업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번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D'LIGHT

사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셋째 미등록 이주 아동과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다문화가정사역 위한 교회 관심 늘어야

아트플라워수업 중인 이주민 어린아이들

아트플라워수업 중인 이주민 어린아이들

부모자격(F-1)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다양한 선교사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초기 미국 이민사회를 상기하여 교회가 사회 적응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임금체불, 인권, 의료, 대인관계 등 이주노동자 및 난민이 겪는 문제들을 교회와 정부기관이 연계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함께 협력하여 자원을 나누고 돕는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8년 전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미등록 외국인으로 살던 몽골인 가족이 있다. 큰딸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지만 불법 체류가 드러나 추방당할까 두려워했고, 막내딸은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미등록자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변동으로 큰딸은 원하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막내딸은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부모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추방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며 기뻐했다.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된다. 기독교 기관은 이들을 품고 도리어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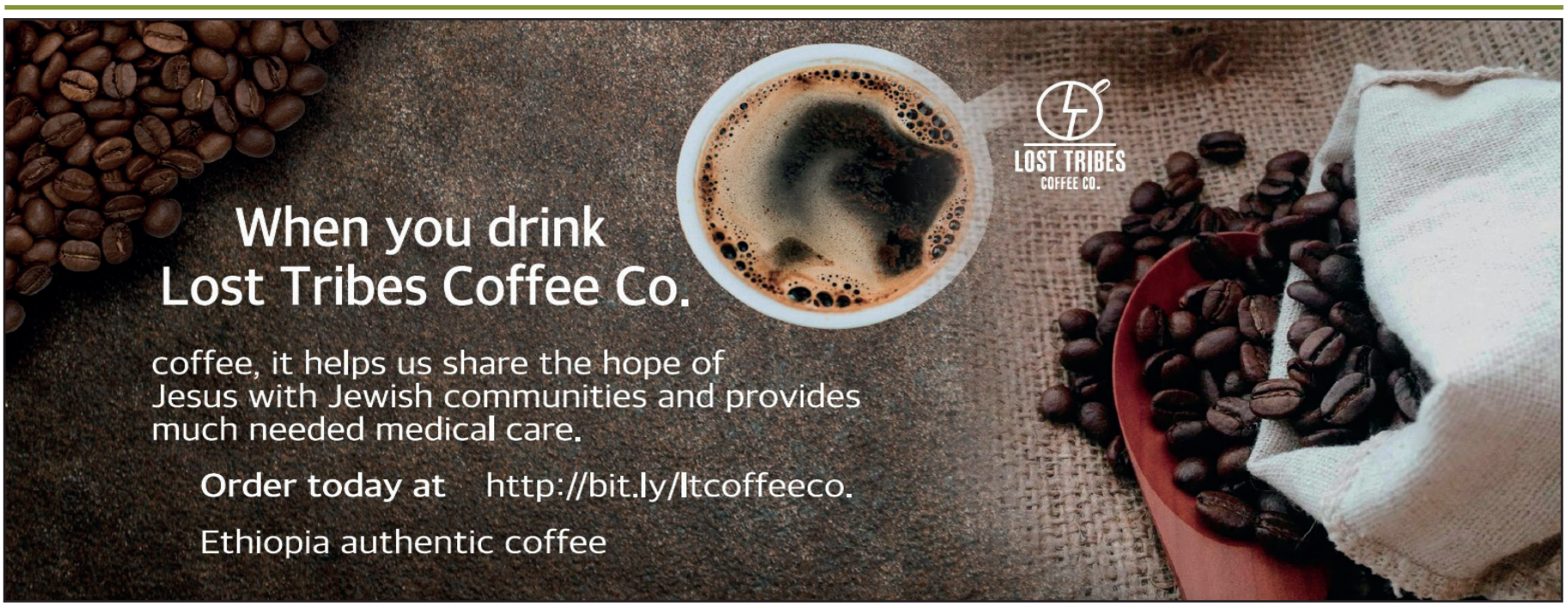
미등록 이주민 사역 외에도 다문화가정 사역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다문화가정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주 여성을 지레 불쌍하게 여기고, 결혼생활이 어려울 것이라 단정 짓는다. 이는 이주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그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고는 이주민 사역에 방해가 된다. 본 법인의 설문에서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사는 동안 어려운 것 중 하나로 '사람들의 편견'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다. 간혹 교회 안에서 힘듦을 호소하는 이주 여성들은 지나친 관심이나 참견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사역의 필수조건 중 하나는 존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주 아동의 교육 문제도 사역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후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고 전해졌다. 학습 부진은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씩 가르치지 않는 한 해결되기가 어렵다.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대학생 인력이 있는 교회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선교의 가능성도 열리게 될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언어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지냄으로 불안정 애착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 교육을 지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친밀감을 나눠야 한다.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이단 종파 이주 여성들도 우리의 선교 대상이다. 통일교도가 1세대에서 2세대로 전수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주민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심은,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주민 사역 파트너
diasporanews.kr



[기획연재] 전세계를 **떠도는 순례자들**

“쿠르드족”

지도상 쿠르트족의 분포지역

나그네 길의 세월과 험악한 세월이라는 삶으로 야곱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신을 고백한다. 이런 길 위에 인생들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다. 그 중에 쿠르드족은 빼놓을 수 없는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 즉 길 위의 디아스포라이다. 쿠르드족은 이란-러시아 국경 부근 아라랏 산 북서쪽에서 티그리스 강 지류인 디알라 강 유역, 그리고 현재는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옛 소련 국영을 접하는 “쿠르디스탄”이라 불리는 험난한 산악 지대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연하여 쿠르디스탄은 쿠르드인의 땅 또는 나라를 의미하며, 12세기 셀주크 터키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쿠르드(Kurd)의 의미는 아랍어로는 원숭이, 터키어로는 늑대, 페르시아어로는 용감한 투사의 뜻을 지닌다. 대부분 수니파 무슬림이며 인도-유럽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총 3천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별로 터키 1천6백만, 이란 7백만, 이라크 4백 50만, 시리아 150만, 아제르바이잔 20만, 레바논 7만, 소연방 카프카스지역의 아르메니아 7만5천, 그루지야 4만, 투르크메니스탄 5만, 카자흐스탄 3만, 키르키즈스탄 2만, 우즈베키스탄 1만, 타지키스탄 3천, 시베리아 3만 5천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약 1백만 명이 디아스포로 움직이고 있다. 수난의 역사를 따라가 보면 16세기부터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7세기 오스만 터키가 페르시아 제국과 맺은 조약에 의해 양국에 분리 편입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 터키의 해체로 이라크와 터키의 지배하에 흡수되었다. 1920년 영국과 프랑스는 세브르조약을 통해 쿠르드국가의 설립을 약속하였고, 1923년 그리스와 터키는 로잔 조약에서 세브르조약을 사문화시키고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지배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1933년과 1944년의 무장봉기가 일어났었다. 1946년 이란내의 쿠르디스탄 마하바드 지역에 쿠르드공화국을 창설하였다. 소련군이 철수하자 이 공화국도 곧바로 무너졌다. 오랫동안 쿠르드족의 반 서구정책으로 인해 스스로 많은 잠재적 지지 세력을 잃었다. 이란-이라크전쟁 기간중 이란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1988년 3월, 9월 이라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제1차 걸프전쟁에서 1991년 중립을 유지하였다. 현재는 이란과 터키는 쿠르드족의 독립을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동정치의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는 쿠르드족 자신들도 독립국가 수립 보다는 이라크 내에서 자치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을 탄압해온 터키는 지난 15년 동안 쿠르드인 3만7천여 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아랍인보다 훨씬 더 많은 쿠르드인은 국가 없는 민족들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수민족 집단이다. 이라크 북부와 북동부는 쿠르드족이 인구의 반수를 훨씬 넘는다. 2005년 2월 발표된 총선결과, 쿠르드족이 25.6%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275석 중 77석을 차지하여 새로운 이라크에서 제2의 주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라크 재헌 의회는 4월 6일 발랄 탈라바니 PUK총재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것은 쿠르드족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쿠르드족의 민족적 배경과 역사를 보면 인접국가인, 이란, 이라크 ,터키와 세 가지 배경, 즉, 인종, 언어, 종교에 있어서 다르다. 첫째, 인종적으로 쿠르드인은 아리안족 이란계 백인이다. 둘째, 언어적으로도 이란의 페르시아어와 같은 인도-유럽계통이다. 셋째, 종교적으로 터키와 같은 수니 무슬림이다.

쿠르드족은 BC 3000년, 원시 인도-유럽어를 쓰던 반 유목민족이 남러시아지방에서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시작되었다. 소아시아의 기존 국가들을 정복하여 히타이트제국(Hittite Empire)을 건설하였다. BC 1200년경 히타이트제국의 붕괴로 그들은 같은 쿠르드족이었던 카시트인(Kassite)이 살던 지역인 루리스탄(Luristan)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다른 아리안 일족이 남부 러시아로부터 이란 고원 지역으로 이동해서 카프카스 지방에 처음으로 정착한 후 점차 루리스탄 및 게르만샤 지방의 외곽지역 서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갔다.

성경 속의 메데(Medes)족으로 알려진 이 부족은 쿠르드족 선조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BC 550년에 키루스가 할아버지로부터 메데 제국(Mede Empire)의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아케메니드 왕조는 메데-페르시아제국(Mede-Persian Empire)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BC 3000년 중반기에 존재했었던 구티(Guti)족으로 그들의 왕국은 현재 이라크 영토 쿠르디스탄과 일치한다. 민족적 명칭으로서 “쿠르드(Kurd)"란 말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가장 많이 퍼져있고 오래 된 부족이었던 구티움(Gutium 또는 Kardochium)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쿠르드족은 히타이트 카시트 메데 구티 등 4종족으로 구성된 것이다. 쿠르드족은 국가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문헌적인 역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쿠르드족의 정확한 기원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세기말 이라크에서의 쿠르드 독립운동은 오스만제국 술탄의 직접통치를 거부하고 영국의 힘을 이용하여 국가 설립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쿠르드민족주의 운동은 20세기에 이라크라는 신생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에 시작된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바그다드라는 도시는 이슬람 문명에 오랫동안 기여해 왔지만, 현대의 이라크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의 패배와 붕괴의 부산물이다. 결과적으로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은 영국이 20세기에 이라크를 세운 것보다 먼저 일어났다.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지는, *1925년에서 1938년까지 터키와 쿠르디스탄, *1943년에서 1945년까지는 이라크의 쿠르디스탄, *1946년 마하바드 공화국 기간에는 이란의 쿠르디스탄, *1961년에서 1975년까지는 이라크의 쿠르디스탄으로 이동하였다. *1961년 9월에서 1975년 3월까지 이라크령 쿠르디스탄에서 일어났던 혁명의 기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1991년 걸프전이후 다국적군의 보호아래 자치권 행사 및 *2003년 사담후세인 정권의 붕괴로 이라크 연방제 내에서의 쿠르드 자치국가 추구라는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의 전체 역사에서 이라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쿠르드족 인구 3천만 명중에서 반이 조금 넘는 수가 터키에 거주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강대국들이 중동문제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쿠르드족은 당시 근대 신생국가의 기틀을 세우던 터키, 이란, 이라크 등 중동 각 지역 국가들로부터 여러 형태의 민족적 박해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터키의 케말 주의자들은 쿠르드족을 탄압함에 있어서 가장 야만적이고 교활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의 어느 나라도 쿠르드 민족주의를 일소하려고 열중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터키 정부가 자국 내의 쿠르드족을 일컫는 말로 ‘산악 터키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쿠르드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에는 쿠르드 난민들이 체류하고 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면서 미국이 주도한 34개국 다국적군이 쿠웨이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보호하고자 걸프 전쟁(1990년 8월 2일-1991년 2월 28일)을 일으켰다. 이때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에 자치구를 형성하던 쿠르드족이 독립을 시도하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쿠르드족 10만 여명을 학살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터키 내 쿠르드인들이 독립을 시도하고 터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을 감행하자 이들 중 약 30만 명이 영국으로 망명하기 시작하여 길 위의 난민들이 되어있다.

〈정리 문창선 편집인〉

도미니카에서 아이티 어린이들을 섬기는 천사

글 헬렌 황 선교사

도미니카 공화국 및 아이티 선교사역 (2015-현재)
MMTC 감리교단 선교사 훈련 (2016-2017)
CANADA, THE FELLOWSHIP OF EVANGELICA BAPTIST 교단 파송 진행 준비 중(2021현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아이티 난민들(이주민)을 섬기고 있는 황 헬렌 선교사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는 같은 땅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두 나라입니다. 많은 아이티분들이 불법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오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한 아이티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삶이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불법으로 오신 많은 아이티 분들은 도미니카사람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을, 작은 보수를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이티 아이들은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 학교에 갈수 없으며, 혹 갈수 있다해도 차별이라는 두려움 아래 부모님들이 현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티 아이들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하루에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 자기 나라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먹고 살기에 바쁜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저는 그런 아이들과 즐겁게 하나님이 선물해주신 놀이터에서 신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티 상황이 좋아지는 그날, 아이티에서의 사역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나눔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사역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아이티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넓고 귀한 놀이터에서 맡겨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티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먼 훗날 아이티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력이었는 귀한 분들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두 나라를 섬 길수 있음이 큰 축복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티 어린아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에 학교에 다니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환경도 그리고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지 목사님 및 선생님들과 기도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눔을 시작으로 불어, 크레어, 스페인어로 수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6개월만인, 9월에 학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9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땅을 빌려 그곳에 교회를 짓고, 교회뒤쪽에 교실을 만들어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작아서 10월부터는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으로 영어 수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도 부족하고, 가정 형편도 많이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우리 아이들의 영양상태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마음을 주시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이 시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넘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학교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더 많이 안아주고, 관심 갖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임을 사역을 할수록 알게 하십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많은 아이티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부유한 사람부터 그렇지 못한, 많은 상황의 젊은 친구들이 좀 더 낳은 미래를 꿈꾸며 도미니카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형편이 좋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께 헌신된 친구들을 선별하여, 장학금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 2명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사역

한류의 인기는 도미니카 공화국, 저희 아이티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단체와 함께, 저희 스텝들의 시작으로 한국어 사역이 진행되어 지고 있으며, 공부방 아이들과도 수업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대일 아동 결연 사역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아이티난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작은 기도와 손길로 많은 아이들이 교육, 굶주림, 병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후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실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나눔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후원자 분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동 결연을 통해,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부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 학비를 후원함으로, 학교가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아이들 가정과 현지 사역 자분들과 웃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후원자를 만나지 못한 아동들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때, 모든 아이들이 후원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건강과 안전 위하여
1. 사랑이 많은 사역자가 되기
2. 말씀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사모하는 사역자가 되기
3. 아동 결연 위한 후원자 연결
4. 아이들을 위한 급식 사역
5. 교회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
6. 공부방 사역장 넓힐 수 있는 공간 확보
7. 동역자 및 정기적 후원 확보
8. 나눔사역 위한 PICK-UP-TRUCK 확보

To-Plate

천혜지역 호주의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기고] 중국인 유학생을 섬기는 **민경일·송양지 성도**

지역교회 성도들이 일구는 이주민 선교

글 **민경일 성도**
나무아래교회 이주민선교팀

저는 독일에서 2년 정도 생활했었기에 외국 생활을 잘 이해하지만, 정작 이런 경험을 사역에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유학생을 돕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만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다 2021년 초에 저희 부부는 MMTS(이주민선교훈련학교)를 수료한 후 이주민 사역에 눈이 열렸고, 이후 대전 배재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겸하며 도왔고, 아내인 송양지 성도가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내부장소 대여가 불가하여 대면으로 만나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나무아래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 부부가 유학생들을 맞이하면서 SEM(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과 함께하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SEM선교회는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눠야 할지 많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 친근해져 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얘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국적과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을 보러 중국에 돌아가려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국 시 받아야 할 검사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이를 잘 모르던 학생이 비행기 표만 예매를 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학생을 도우며 저도 몰랐던 정책들을 알게 되었고, 사역하는 성도로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송양지 성도는 적극적으로 그 학생을 도우며 하나하나 직접 해결해주었습니다. 반면 저는 학생이 스스로 해내도록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부딪히고 경험하여야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민경일·송양지 성도 부부

나무아래교회 장소를 제공으로 SEM(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과 함께하는 유학생 사역

이처럼 학생을 도우면서 저와 아내의 방식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송양지 성도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일이 학생을 도와주는 편이고, 저는 방법을 알려주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니다. 저와 아내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을 잘 도울 수 있을지 각자 고민하여서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한 가정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나무아래교회에서 이주민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피아노·클라리넷·성악가·재즈보컬·판소리·드럼으로 무대가 꾸려졌고, 중국 유학생들이 공연을 찾아와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어 많은 분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콘서트에 들어가는 출연 비용, 선물비, 스텝 섬김비 등 모든 비용은 나무아래교회가 부담하고, 들어온 후원금은 전액 SEM과 WiThee국제선교회로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이 많이 줄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음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크리스마스 때는 주로 교회 자체적으로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콘서트를 통해 교회 외부 사람들과 함께 성탄을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단체를 돕고, 이주민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예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Christ the Savior Christian Church (CSCC) 리포트

필리핀 이주민의 안식처이자 가정집이 된 공동체

글 Jerry C. Yusi (CSCC Foreign Ministry Pastor)

CSCC 필리핀 이주자 멤버들

신월동 교회의 외국인 선교부는 2008년에 신월동일대에 사는 필리핀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은 신월동 성결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제리 유시(Ptr. Jerry C. Yusi) 목사는 외국인 선교부의 전임 사역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밤에 예배를 드렸는데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하여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19일 신월동 성결교회 외국인 선교부(SSCFM) 주일예배가 탄생했습니다.

처음 드리는 주일예배에는 40명이 넘는 필리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제리 목사와 몇몇 사역자들은 정기적인 성경공부와 심방을 시작하여 신월동, 부천, 시흥, 화성에 거주하는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전도를시작해 2016년 8월에 강원도 홍천에서 열명의 성도들이 첫 세례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필리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세례식이었습니다.

SSCFM은 2015년부터 Jeremiah Lepasana 목사가 집필한 E12 제자훈련 매뉴얼(Pre-Encounter to School of Leaders 3)을 사용하여 지도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훈련된 제자들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에는 유시 목사의 안수식이 신월동교회 본당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리고 안수식 후 신월동성결교회 외국인선교부 (SSCFM)는 예성 교단 산하의 독립된 교회가 되었으며, 정식 명칭을 CSCC(그리스도구세주교회)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독립으로 CSCC 지도부는 더 나은 전략으로 필리핀 이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여름에는 농구 토너먼트를 진행하여 효과적인 전도의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는 "농구보다 성경이 먼저"라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선수들이 플레이하기 전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매 경기 전에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CSCC는 총 26명의 새로운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는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응접실 게임을 하고, 추첨을 하고, 필리핀식의 전통 명절 음식을 즐겼습니다. CSCC는 집을 떠나 있는 필리핀 이주민들에게는 안식처이며 가족들이 거하는 집으로 여겨 이곳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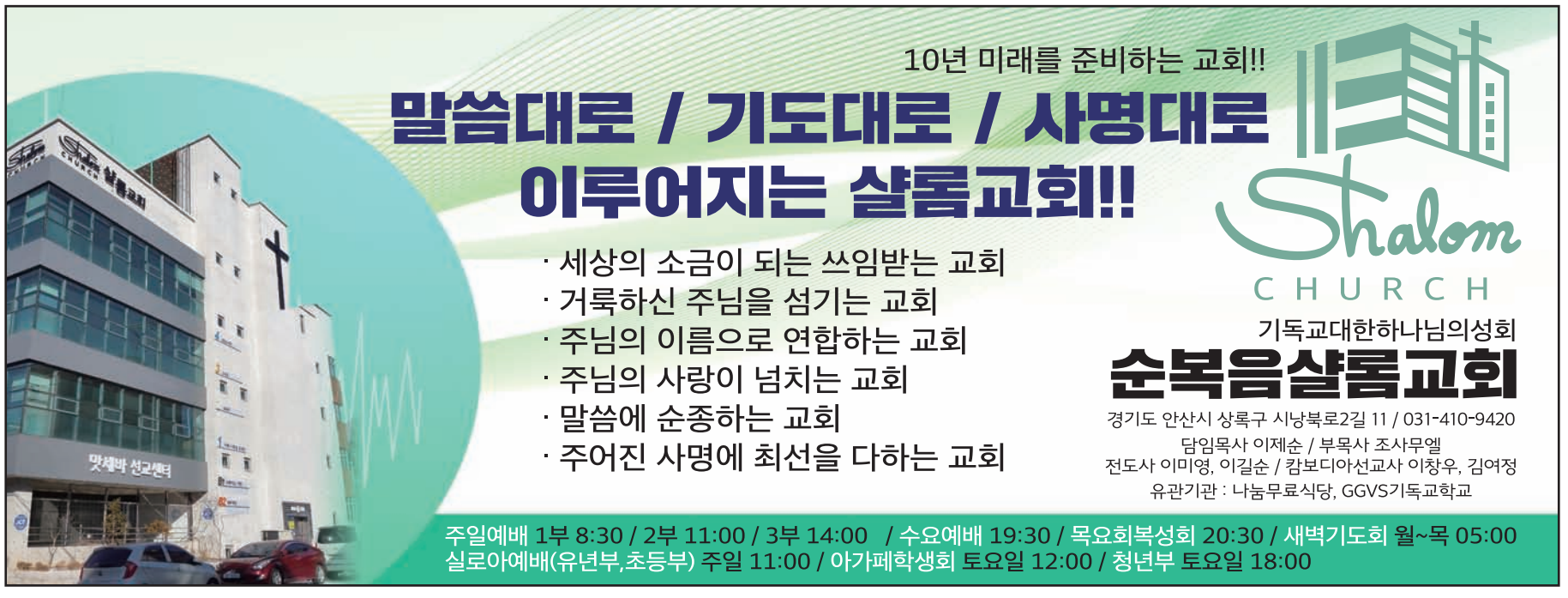
팬데믹 이전에 CSCC는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연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맘때쯤 우리 교인들은 한국의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잠시나마 자신들이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성도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의 시작은 COVID-19에 대한 뉴스와 확산으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워진가운데 3월 말 한국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고, 심지어 감염환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거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CSCC는 적절한 건강 프로토콜을 준수하면서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경우에도 현장예배를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5월 17일에는 교인들끼리 간소하게 설립 7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거의 모든 교회 활동이 COVID-19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제자반과 성경공부는 온라인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전도 훈련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이 훈련을 위해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약 10명의 필리핀인 SSCFM에서 현재 CSCC로 팬데믹 이전에 거의 4배로 성장했습니다. 매주일 평균 30~40명의 참석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CSCC는 많은 회원들이 여러 제한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오갈 수 없지만 어디서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서울, 부천, 부평, 화성,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서 최대한 많은 필리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월-금요일 야간 온라인 기도 시간과 헌신, 주간 온라인 및 현장 제자수업, 매주 토요일 저녁 온라인 기도 모임, 물론 매주 일요일 오후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CSCC와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재] Dr. Tereso Casino 선교논단

보트 체험, 창조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반증

글 Dr. Tereso Casino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본지 필진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얼마나 큰지 보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인류와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니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느니라"(창 6:5-8)"

20세기에 '보트 피플'은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박해로 인해 고국을 떠나 목숨을 위협받는 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트 피플" 중 유명한 것은 1975년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함락되었을 때 바다로 탈출한 베트남인들이었다. 미국 해안에 도착하기 위해 배를타고 공산 정권을 탈출한 쿠바인, 호주로 항해하는 아프간인, 바다를 통해 지중해를 건너는 시리아 난민도 "보트 피플" 범주에 속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노아의 가족은 "방주"라는 배를 타고 고국에서 처음으로 이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미 182세였습니다(창세기 5:28). 아들 노아에 대한 아비 라멕의 소망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창세기 5:29, NIV)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의 아들이 어느 날 배를 만들어 인류의 남은 자들과 항해하고 인류 문명을 다시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실 때"(창세기 6:5) 악이 지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을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인류와 땅 위를 움직이는 피조물들을 "깨끗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최초의 "보트 이민자"의 관점에서 노아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직후,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직계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다고 알려 줍니다. 첫 번째 가족이 확장되고 아담의 혈통이 퍼질 무렵 인류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영적 헌신에서 도덕적 퇴행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만연한 악을 신속히 처리하셨습니다. 사악함에는 결과가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악행과 죄성향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되면서 반드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태의 악과 불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순수함이 사라진 지 오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파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하셨던 것처럼 일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땅에 홍수가 난 것은 인간의 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홍수로부터 안전한 길을 마련하심으로 한 가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방주는 후에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여덟 사람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의 삶에 동시에 펼쳐진 "멸망 - 구원" 주제는 성경 역사상 최초의 "보트 이민자"의 중심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보트 이민자"에 대한 몇 가지 사실

15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16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찌니라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실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창세기 6:15-17)

노아의 가족에게 홍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그쳤고, 살아남은 여덟 명이 동물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창 9:7). 하나님께서 명령을 두 번(창세기 9장 1절과 7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창세기 1:28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조 보호 명령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지개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하여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날의 선교하는 교회를 위한 통찰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거나 가인이 방황하는 경우와 같이 노아 가족의 경험을 인류 역사에서 이어지는 '보트 피플' 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패러다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보트 피플"의 시련은 노아 시대의 도덕적, 영적 풍토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는 노아의 가족에게서 약간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트 체험은 특히 창조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당신의 주권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보트피플들의 행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선행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노아의 방주 경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조건과 사건을 조정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임무와 목적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오늘날의 보트피플들의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탁월하고 능동적입니다.

더욱이 노아 일가의 경우처럼 오늘날의 '보트 피플'도 불확실성 속에서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노아의 가족은 오늘날의 보트 난민들이 직면하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녔을 것입니다. 멀미, 난파 가능성, 불확실성, 실향, 방해 및 정체성 혼란 등입니다. 그러나 여덟 사람은 몇 달 동안 이렇게 방주에 머물렀지만 낙천적인 처신과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극복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 때로는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어려움으로 바다를 여행하는 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역 문창선 편집인〉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연재] 한인디아스포라와 세계선교 - 2회

한인디아스포라와 세계선교

글 김성훈 선교사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여러 나라와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고 지키도록 유대인들을 택하셨듯이 복음 운동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그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사용하여 그의 위대한 사명으로 인도합니다(계 1:20, 2:5). 복음 운동은 역사 속에서 계속될 것이며, 종말의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여러 나라와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고 지키도록 유대인들을 택하셨듯이 복음 운동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나라가 그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사용하여 그의 위대한 사명으로 인도합니다(계 1:20, 2:5). 복음 운동은 역사 속에서 계속될 것이며, 종말의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를 이끌 것입니다.

1. 역사에 드러난 복음의 과정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이론 중에는 복음운동이 서쪽으로 향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인 Richard Sibbes(1577~1635)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1630년 그의 설교 '상처받은 갈대'에서 그는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청교도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했습니다. 시간은 더 서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Sibbes에 따르면 복음 운동은 유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 대륙으로,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Sibbes는 그것이 북아메리카의 신대륙으로 활발하게 이동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시베스의 설교에서처럼,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17세기와 18세기에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궤변적인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경 연방을 추구하여 입헌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유럽 국가가 보고 존경 할 수 있는 '언덕 위의 도시'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거룩한 영연방(Holy Commonwealth)을 설립했습니다. 18세기에는 뉴잉글랜드 인구 30만 명 중 약 25만 명이 개종한 대각성운동이 있었고 아메리카 원주민 복음화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세기 초에 복음은 미국의 변방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전도의 중심이 되자 복음 운동은 다시 서쪽으로, 이번에는 태평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Kenneth S. Latourrett이 지적했듯이 19세기는 영국 선교사 William Carey(1761-1834)가 주도한 세계선교운동으로 인해 '교회 사상 가장 위대한 세기'가 되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은 금세기였습니다. 아프리카, 인도, 페르시아, 인도차이나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마지막으로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나라인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감취어진 나라에서 선교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국 선교가 가장 결실을 잘 맺었습니다. 120년의 선교 역사 동안 인구의 25퍼센트 이상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 국무총리, 공무원, 국회의원의 3분의 1, 대법원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장로교와 가장 큰 감리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망한 젊은 지도자들은 전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합니다. 40개 이상의 신학교와 신학교에서 매년 100,000명 이상의 교회 일꾼이 배출됩니다.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세계 2위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전 세계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한때 알려진 복음 운동의 가장자리가 이제는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반세기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오늘날 한국의 교역량은 세계 9위, 경제력은 세계 13위입니다. Goldman Sach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세계 2위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촛대가 한국으로 옮겨졌고 이제 이 나라의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셨고, 또한 많은 한국인들을 세계 각지에 흩으셨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인 선교사 Robert Jermain Thomas(1842-1866)가 대동강에 도착하여 한국 복음운동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Thomas는 1866년 미국 선박인 General Sherman에 의해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메마른 복음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심과 동시에 한국인의 유목민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 한인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한국 이민의 역사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조선 후기에 시작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근대화를 선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일부 한국인들은 하와이와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한일병합이 강제로 적용된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이 해방된 1945년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은 미국, 독일 등 다른 나라로 활발히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연재)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문화] 마르크 샤갈 **대표작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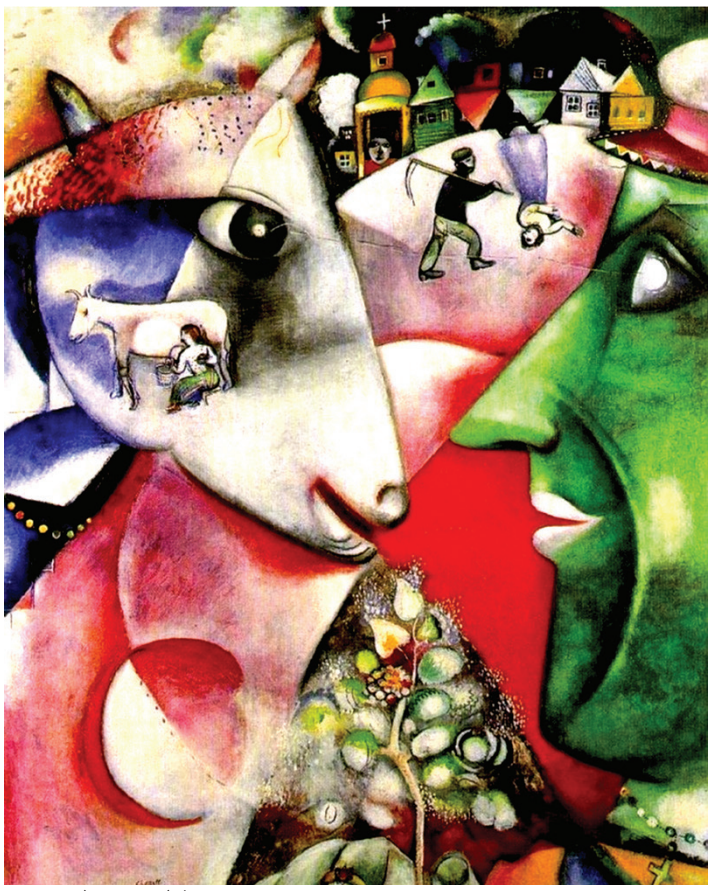
나그네 길을 걷는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 담긴 그림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

마르크 샤갈의 그림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나그네의 길을 걷는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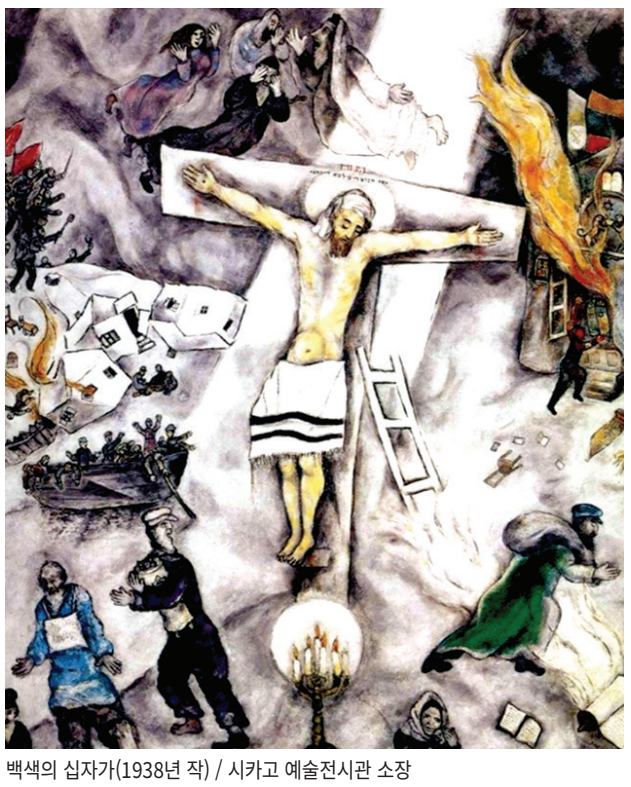
마르크 샤갈은 가장 사랑받는 20세기 화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러시아계 유대인이었고, 스스로 이방인이라 생각하며 살아갔다. 그도 그럴 것이 미술 공부를 위해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도중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그는 러시아로 귀국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가 된 러시아에서 예술 탄압이 있어 다시 파리로 가고,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에 정착한다. 그렇게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경험하기도 했다.

"사는 동안 나는 내가 나 자신이 아닌 어느 누군가가 아닐까, 또 내가 태어난 곳도 하늘과 땅 사이의 어디쯤이 아닐까 하는 느낌을 종종 가졌다. 이를테면, 이 세상은 나에게 광대한 사막 같은 곳이었고, 나는 그곳을 헤매는 호롱불 같았다." 샤갈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방랑자적 정체성은 스스로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의 발 대부분이 공중에 떠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샤갈의 작품에서 그리움의 정서가 묻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그의 그림에 묻어 있는 그리움은 때로는 자유로움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샤갈이 혹독한 생활을 했으리라 추측되지만, 그의 그림을 본 관람객은 서정적이고 따뜻한 인상을 경험한다. 그림에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와 마을(1911년 작) / 뉴욕현대미술관 소장

내 생일(1915년 작) / 뉴욕현대미술관 소장



백색의 십자가(1938년 작) / 시카고 예술전시관 소장

나와 마을

〈나와 마을〉은 샤갈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중 하나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아온 작품이다. 샤갈이 24세의 젊은 나이 때 고향인 러시아를 떠나 파리에서 그린 작품이다. 그림을 보면 우측에 초록색 얼굴의 '나'와 좌측의 염소가 서로 마주 보며 미소 짓고 있고, 둘 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 '나'는 반짝이는 나무를 들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생명나무 혹은 떨기나무라는 해석이 있다. 그에게 신앙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큰 염소의 얼굴에는 작게 염소의 젖을 짜는 여인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마을이 보인다. 이러한 풍경이 그림을 목가적이면서 환상적으로 보이게 한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지점이다.

생일

〈생일〉은 샤갈이 연인이었던 벨라와 결혼하기 열흘 전에 그린 그림이다. 샤갈이 "그림은 내 손으로 그리지만 생각하는 머리는 벨라"라고 말했을 정도로 벨라는 샤갈에게 평생의 뮤즈였다. 이 그림의 제목도 벨라가 지어주었다. 방랑자 같았던 샤갈에게 다가온 운명적 만남은 그림처럼 꿈만 같았을 것이다. 샤갈이 자신과 벨라를 초현실적 표현으로 그렸지만, 도리어 그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 샤갈은 공중에 떠 있고, 벨라의 한 발은 땅을 디디고 있다.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겼던 샤갈에게 벨라는 현실을 디디게 하는 중요한 사람이자 사랑이었을 것이다.

하얀 십자가 처형

샤갈은 "성경은 물감이 담긴 그릇과도 같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의 작품 세계에서 성경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는 성경 속 내용을 모티브로 상당수의 그림을 그렸는데, 〈하얀 십자가 처형〉 또한 그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 발발 한 해전에 완성되어,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였다. 샤갈의 그림 대부분이 강렬한 색채로 그려진 데에 반해 이 그림은 색감이 절제되어 어둡고 침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예수의 왼편에 빨간 깃발을 들고 어디론가 돌진하는 무리는 소비에트 탄압을, 우편에는 나치 탄압을 나타내며 당시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하얀 빛깔의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만이 소망이라는 메시지와 그 사랑이 나타나길 바라는 샤갈의 염원을 느낄 수 있다.

권대식 기자
intruthinlife@gmail.com

울산경남세계선교협의회, 울산경남세계선교협의회 창립예배

UGWMA 창립총회 참석자들

KWMA 운영이사장 여주봉 목사가 박정곤 목사에게 UGWMA 이사장 위임장 전달

고현교회 교역자 부부로 구성된 둘로스은혜중창단의 특송

설교하는 김문훈 목사

강대흥 KWMA 사무총장

지난 1월 27일(목) 오전 11시 고현교회에서 울산경남세계선교협의회(UGWMA: The Ulsan Gyeognam World Missions Association) 창립총회를 가졌다. UGWMA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제안으로 출발하여 초대 이사장을 맡은 고현교회 박정곤 목사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손승호 선교사(KPM & OMF 협력)가 리더십으로 이끌게 되었다 손사무총장은 UGWMA는 KWMA와 협력하여 울산과 경남지역에 유입된 이주민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주안점을 둘 것이며 주 사역은 이주민 사역을 위한 지역교회의 동원, 기존의 이주민 사역자들을 도움, 새로운 이주민 사역자들 발굴, 해외 유입 선교사의 재배치, KWMA와 협력사역 등이라고 밝혔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리스닝콜, 줌 상의 "미니포럼" 전개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의 사역중의 하나인 "리스닝콜"은 지난 회기에 총 4차례를 진행하였다. 리스닝콜은 참여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제언하고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줌 상의 "미니 포럼"이다. 이에 2022년에도 더욱 풍성한 주제로 리스닝콜 사역을 전개할 것을 총회에서 발표하였다.

말레이시아 이주민선교 네트워크, KIMA와 양해각서 통해 연합키로

말레이시아 이주민선교 네트워크(Malaysia Diaspora Network, 대표 Rev. Dr. Andrew Ng)는 한국의 이주민 선교 전략 공유를 요청하였다. 이에 KIMA는 양해각서를 통해 연합하기로 했다. 특히 위디국제선교회는 MMTS 훈련 프로그램의 말레이시아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정기총회 개최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열린 KIMA 정기총회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열린 KIMA 정기총회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는 20일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KIMA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이주민 정책 참여, 선교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나선다. 10월엔 이주민 선교포럼을 열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이주민 선교 방법도 발굴한다. 지역 교회와의 이주민 사역의 전략과 방법론을공유하여 네트워크 구축에도 집중한다.

설 맞이 이주민 이모저모, 이주민 어린이도 즐거운 설날

설은 이주민 어린이들에게도 신나는 명절이다. 국내의 이주민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의 외국인선교부는 이주민 성도들에게 설 연휴 기간 중에 수련회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타향살이의 피곤함과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특히 서울랜드에서는 연휴기간마다 이주민들에게 입장권을 특별할인해주어 즐거운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있다.

글로벌비전센터, 에티오피아 형제의 장례식

Samuel Bekele Liben

에티오피아 유학생으로서 기후변화 박사과정 중이던 사무엘 형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변 분들의 안타까움 속에 장례가 있었다. 주한 에티오피아 교민회장 알렉스 형제와 Bluk 목사 및 에티오피아 관계자들이 주관하였으며 글로벌비전센터(문성주 목사)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추모하기 위해 작은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디아스포라 신문, 미션펀드 후원계좌 개설

디아스포라신문이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션펀드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 새중앙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 www.sja.or.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1호	크리스토퍼리 전도사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선교센터 3층 301호	크리스토퍼리 전도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교육관 3층 고등부실	위다니엘 목사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교육관 3층 유년부실	신자설 전도사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4층 402호	응웬시푸 목사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4층 403호	쥴리아니 목사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2호	유혜란 목사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비전센터 5층	김옥환 목사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비전센터 4층 402호	델게레흐 전도사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선교센터 3층 303호	남인 목사

≫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 온오프라인 동시 예배 www.central.or.kr

구분	시간	대상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한국인	박승찬 전도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한족	양아진 전도사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인	잡할란 전도사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한국인	김진완 목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인	윈중빈 전도사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러시아인	김빅토르 목사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네팔인	산제이 전도사

≫ 아시아인마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 www.ainma.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조혜숙 목사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ttps://www.facebook.com/groups/161623585179481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박다니엘 목사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 052-242-1171/ www.upcweb.net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학성동 377-23 3층 예배실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기독교회(복산동 506-2)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교육관1층 백합실	

≫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010-8637 0333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02-446-4195/ www.nasom.or.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 열린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 1661-4372/ www.yullin.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새빛 빌딩 5층	

≫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 www.oryun.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박지윤 전도사
중국어예배		본관 7층 다니엘홀	유요셉 목사
일본어예배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이슬기로 목사
인도네시아어예배		오륜지역아동센터	테오피릴아 전도사
러시아어예배		오륜국제한가족센터	임혜림 목사
벵갈어예배		제1교육관 2층	차순현 목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오륜국제한가족센터	휜튀탄튀 전도사

≫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정진학 목사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 사단법인 올프렌즈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 www.allfriends.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캄보디아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8:00	예배실	남궁성 목사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2:4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9:00		

≫ 암미선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김영애 선교사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38-4 무지개 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예배실	박성규 선교사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 호산나교회

명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하단**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 051-209-0191/ www.hosanna21.com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명지 11층	수리아완 목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명지 4층	도홍년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명지 9층	이대희 목사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하단 5층	마영렬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명지 9층	란천우 전도사

≫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02-764-1181~4/ www.dongshin.or.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1교육관 2층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2:40	1교육관 3층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1교육관 4층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9:00	하층2호	

≫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010-3512-670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www.kwangsung.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비전센터 3동	응웬반떼 전도사
태국예배	주일 오후 2:30	비전센터 3동	황경희 선교사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드림 1동	윤성로목사

≫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www.gohyun.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본당 평강홀	최윤갑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바울관	강민환 목사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비전센터 바울관	강영애 사역자

≫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www.dgmc.co.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중국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예배실	유근영 목사

≫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페이스북 생방송	정상엽 목사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00	줌 예배	
토요예배	토요일 저녁 8:00	예배실	

≫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예배실	김조훈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58 / 032-424-8511 www.hyo7.com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글로벌하모니교회	칸아킬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후 5:00	유학생센터	심복희 선교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유학생센터	심복희 선교사

≫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예배실	이익성 목사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 010-3604-8139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선교센터 4층 비전홀	석창원 목사
	주일 오전 11:30		

≫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02-2208-0811~3/ www.dongilch.com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제6교육실(4층)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제7교육실(4층)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초등부실	

≫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031-911-2289/ www.slmcc.or.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대예배실	안심원 목사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교회 2층	이동훈 목사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센터 4층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센터 3층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쉼터 1층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채담비 목사

이주민 예배

≫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Global Vision Center)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F / T. 010-2875-9639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를 사모하는 자	문성주 목사
글로벌(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열방을 섬기는 자	문성주목사,김동식목사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아프리카 섬기는 사람	테드, 문성주 목사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00	새벽을 깨우는 사람	문성주 목사
수요,금요기도회	저녁 8:00	기도하고 싶은 사람	문성주 목사
일대일제자양육	주일 오후 3:00	제자훈련 열정자	문성주 목사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서울대유학생	그레이스 선교사

≫ 분당매일교회 샬롬하우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107번길 10-7 티엘산업 / 010-3951-8680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티엘산업 내 예배실	이창호 강도사

≫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 053-756-1701 www.ds-ch.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교육관 3F 303호	사무엘사 목사
중국예배	주일 오전 11:20	교육관 3F 302호	박영송, 평신월 선교사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참신관 3F	레쭝당 선교사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참신관 2F	텐마리나 선교사
중국어유치부(5-7세)	주일 오후 12:00	교육관 2F 205호	평신월 전도사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14:00	비전관 2F 믿음홀	비카토 전도사

≫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 053-756-1701/ www.daeyoung.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외국인한글학교	토 오후 8:00	지하2층 교육실 (현재 코로나19로 예배가 없음)	이진욱, 김명규목사
	주일 오후 1:15		

≫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02-717-5025 / www.gwks.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고본관4층 4-1	안승희전도사

≫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 062-375-0400/ www.wemwem.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비전홀	박용범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드림홀	김미리 목사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드림홀	조해룡 목사

≫ 갓플리징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 010-3633-0864/ www.godpleasing.modoo.at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전득안 목사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예배실	이종만 목사

≫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8 (안산동산교회) 031-400-1111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www.d21.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WM센터 지하	허다윗 전도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WM센터 2층	원공브엉 목사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WM센터 3층	큼씬 전도사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WM센터 4층	어기 전도사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WM센터 4층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교회 10층 동산아트홀	양주성 전도사

≫ 예수향남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117 / 031-354-9221 www.jesushn.com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발안회복교회	김영대 선교사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교육실1/ 1층	김남숙 선교사

≫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 02-2023-5600 www.namseoul.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북향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신교육관 F실	현정호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신교육관 G실	홍대영 목사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신교육관 B실	후이팡 전도사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신교육관 E실	

≫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010-2025-7123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예배실	송나무 선교사

≫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 www.dream10.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B1 Event Hall	현한나 목사

≫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 010-7493-0080/ www.vfu.co.kr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토요예배	토 오후 7:00	베트남 문화마을	투언 목사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예배실	투언 목사

≫ 안양제일교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 031-449-1195/ www.anyangjeil.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본관 지하2층 평강홀	변상선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본관 지하1층 세미나실	차성진 전도사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CM 센타 3층	원주희 목사

≫ 시티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010-9747-0316
https://ulinch0229.wixsite.com/ulinch?lang=ko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예배실	신치헌 목사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예배실	신치헌 목사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카페 사브낫바네아	신치헌 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예배실	신치헌 목사

≫ 위디국제선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T. 031-468-9191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산소망교회	Jennet Eledi 목사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ZOOM	임진숙 목사

≫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 031-485-0955/ www.ansan1.org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1층 가나홀	로저 목사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브릿지센터 2층	박월성 목사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1교육관 3층	정은혜 목사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1교육관 지하1층	라주라나마갈 목사

≫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 010-9463-5857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예배실	단쿤와 목사

≫ 새생명태국인교회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

구분	시간	장소	사역자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예배실	홍광표 목사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국내 이주민 선교의 파트너
디아스포라신문
DIASPORA newspaper

발행고문 **황덕영** 목사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편집국장 **이창배** 목사
gypy227@naver.com

총괄본부장 **이승혜** 기자
seunghyelee@naver.com

편집국 기획부 **임진숙** 기자
divinegrace2237@gmail.com

편집국 사회부 **조흔정** 기자
chohunjung@hanmail.net

편집국 교육부 **하소미** 기자
hexiaomei@naver.com

편집국 인터넷 **민경일** 기자
piellove@naver.com

편집국 **권대식** 수습기자
intruthinlife@gmail.com

편집국 **문예은** 수습기자
1215grace@naver.com

온라인 편집팀장 **김혁준** 목사
loke0114@gmail.com

행정/재정팀장 **이진아** 선교사
izina@hanmail.net

디자이너 **김기옥** 선교사
seuwandi@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위디국제선교회

대표전화: 031-420-631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구독 및 광고문의는 항상 가능합니다.
대표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diasporanews.kr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를 전한다

meritz 메리츠화재
이주민전문보험 특화팀
031-420-6306
막대한 의료비 보험으로 준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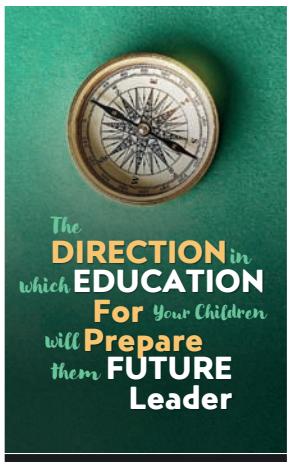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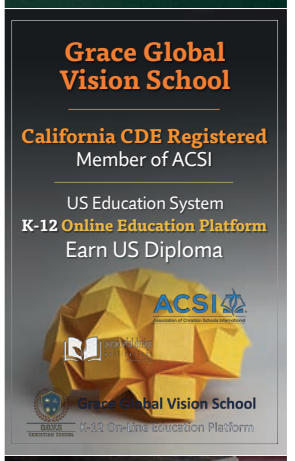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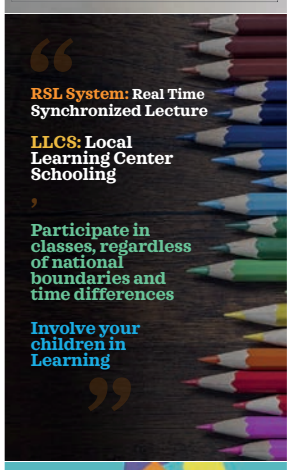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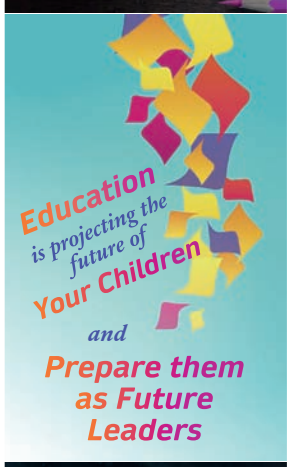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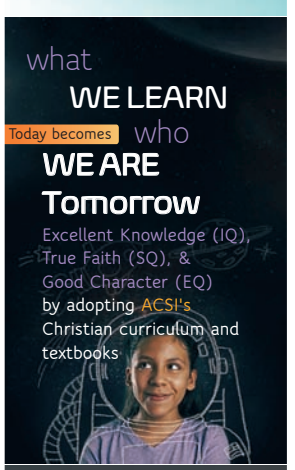
PHOTO GALLERY
디아스포라신문 포토갤러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총회 "이모저모"
주안교회에서 열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총회에서 신화석 법인이사장의 축도

로잔한국 총회 모임
로잔한국 총회 모임이 열려 2024년 로잔모임에 대해 논하고 있음

만나교회 MMP-W 3기 모임
만나교회 MMP-W 3기에서 사역을 발표하는 위디연구소장 김혁준 목사

2022년 KIMA총회
새중앙교회에서 열린 2022년 KIMA총회에 참여한 회원들의 단체사진 포즈

에디오피아 유학생 형제의 추모공간
고 사무엘 베켈레 리벤의 빈소(국제비전센터)

〈사진설명〉
사진 1. 본지의 지원을 받는 짐바브웨 유대인 디아스포라 어린이들
사진 2. 이주어린이들은 전방위적으로 케어해주어야 할 대상
사진 3. 남미의 아프리칸 이주민 어린이들